

계사년 태사묘 추향대제 봉행



△태사묘우에서 3태사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계사년(癸巳年) 태사묘(太師廟) 추향대제(秋享大祭)가 9월 18일(음력 8월 14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동시 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동 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김명년(金命年), 아헌관(亞獻官) 권영해(權寧海), 종헌관(終獻官) 장범진(張範鎭), 축(祝) 권영무(權寧茂), 김재현(金宰顯), 장승동(張承東), 찬자(贊者)는 김진한(金進漢)이 담당하였다. 추석 전날이며 초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참제원이 예상보다 많이 참석, 무려 2시간에 걸친 제례(祭禮)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제례를 마친 참제원은 송보당(崇報堂) 앞 잔디에서 합동 기념촬영을 한 후 송보당에서 헌관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명년 초헌관은 “오늘 태사묘에서 술을 올리게되어 무한한 영광이며 세 어른이 계셨기 때문에 양반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또 좋은

은 문중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권영해 아헌관은 “영주에서 온 검교공파”라고 자기 소개를 한 후 “세 어른을 모시니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장범진 종헌관은 “전쟁 중 조부님을 따라 이곳에 와서 조부가 위패를 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인지 물었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며 옛일을 회상하기도 했다. 이어 장희경(張熙慶) 태사묘관리위원장은 “추향제 많이 참석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권오익(權五翼) 사무국장이 “보물각에 훈증소독을 1주일 간 실시했다”는 등의 경과보고를 했다.

송보당에서 음복례(飮福禮)가 끝난 후 참제원은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나누어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환담을 나누다가 해산하였다.

문헌비고에 모재 김안국(金安國)은 “권태사의 장손 휘 책(冊)이 스스로 구하여 안동부의 호장이 되고 대대로 3공신의 사당일을 주관하게 되었다. 신라와 고려의 즈음에 사묘(祠廟)의 제도가 미비하니 3공신의 위판은 부사(府司)에 있게 되었다.”



△삼태사 추향제를 마치고 송보당에서 기념촬영 하였다.



△송보당에서 추향제 분정례를 올리고 있다.

고 하였으며 안동읍지인 영가지(永嘉誌)에는 “3공신의 사당이 부사(府司)에 있고 삼한벽산삼중대광아보공신(三韓壁上三重大匡亞父功臣) 권행(權幸) 김선평(金宣平) 장정필(張貞弼)의 사당이다”라고 하였다.

태사묘는 성종2년(983년)안동부사(安東府司)에서 3공신에게 제향을 올리면서 비롯되었다. 중종(中宗)37년(1542년)에 안동부사(安東府使) 김광철(金光轍-權太師公 外孫) 부사(府司)가 옛터를 정리하여 새롭게 하고 비로소 묘우(廟宇)를 세웠

다. 경상감사(慶尙監司) 권철(權轍, 권을 도원수 부친)이 제전(祭田)을 두고 묘(廟)의 노복(奴婢)을 주었다.

선조(宣祖)18년(1585년)에 권호문공(權好文)이 본묘(本廟)의 도유사(都有司)가 되어 3성이 의논하여 제례규칙(祭禮規則)을 정하였는데 사시절사(四時節祀)의 예(禮)가 너무 번거롭고 어지러우므로 춘추(春秋)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행사하기로 정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 안동종친회 2013년 복회(伏會) 개최

안동권씨 안동종친회(회장 : 권재주)가 주관하는 2013년 복회(伏會)가 8월 31일 오전 10시 안동시 남후면 암산유원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권정달 안동권씨대종원 총재, 권영해 전 국방장관,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김광림 국회의원, 도, 시의회의원, 종친회원과 부녀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복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던 권영세 안동시장이 터기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참가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하여 권영여. 권기원의 2인조 밴드가 섹스폰으로 ‘갈래의 순정’ ‘고장난 벼식계’ 등 수십곡을 연주, 분위기를 완전 사로잡기도 했다.

이 복회는 족친간의 친목과 족의(族誼)를 돈독히 하고 권문(權門)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암산유원지에서 연이어 4년째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일동 묵념, 시조묘소망배, 상견례에 이어 권인찬 행사준비위원장이 구수한 입담으로 참석한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고 아울러 찬조금을 협찬하거나 각종 선물을 기증한 족친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를 때 마다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권재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원근에서 족친들이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마우며 또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권인찬 준비위원장과 부녀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종친회가 중심이 되어 권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많이 들고 유쾌한 하루를 보냈으면 고맙겠다.”고 했다.

권정달 총재는 축사에서 행사에 수고한 주회 측을 격려한 후 “즐거



△8.31 안동지역 족친 700여명이 암산유원지에서 복회에 참석하여 화합을 다졌다. (원내차:권정달 총재, 우:권재주 안동종친회장)



△상:권영해 장관, 총재, 김광림 의원, 재주회장 등, 좌하:족친들 성찬, 우하:흥겨운 여흥

운 시간과 서로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은 권계동 삼일 부총재와 권순갑 부총장을 별도로 인사시키기도 했다.

권영해 전 국방장관과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김광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복회를 진심으로 축하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은 인사 삼계탕을 마련했고 수박, 복숭아, 배, 포도 등 각종 과일과 소주, 맥주, 막걸리, 음

료수 등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었다.

점심식사가 끝나자 2부 행사로 여흥시간을 갖고 사전 선발된 대표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등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냈다.

안동지방은 오랫동안 폭염에 지쳐 있었으나 이날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기온이 약간 내려 간데나 바람이 제법 불어서 행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소천(笑泉) 권태호선생 음악관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건립 순조

동요와 동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우상인 소천 권태호와 동화작가 권정생을 테마로 한 음악관과 문학관이 들어선다.

이른 봄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연상되는 노래는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로 시작되는 ‘봄나들이’다. 1980년 전반기 윤석중 선생이 작사하고 소천 권태호 선생이 작곡한 이 노래는 80여 년 동안 봄을 대표하곤 동요로 국민들의 가슴 한편에서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동출신으로 봄나들이, 꽃피는 삼천리, 초생달, 봄오는 소리 등 우리나라 현대음악의 선구자로서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소천 권태호 선생의 음악관이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들어선다.

성악가이자 동요작곡가인 권태호(1908-1972) 선생은 1910년 안동에배당에서 선교사에게서 오르간을 배우며 서양음악에 관심을 가졌으며, 안동보통학교와 일본 고등음악학교를 졸업했다.

1930년 숭실전문학교를 비롯해 광성학교와 중앙보육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국내 최초로 독일가곡을 소개하는 등 우리나라 초기 성악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성악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성곡동) 안에 50억5천만 원을 들여 건립중인 소천 음악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27㎡ 규모로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된다. 이곳에는 연주홀을 비롯해 전시실, 다목적 강당, 체험실, 연습실, 교육실, 야외음악당 등이 마련된다.

강아지똥, 몽실언니 등 아동문화의 선구자로서 가장 많이 어린이들을 위한 주옥같은 동화를 남기고 지난 2007년 타계한 ‘권정생 선생 어린이 문학관’ 조성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권정생 선생은 1937년 5남2녀 중 여섯째로 태어나 일직초등을 졸업하고 20세부터 일직면 조탑리 일직교회 문간방에서 종지기 생활을 하며 1969년 ‘기독교 교육’에 동화 강아지똥으로 제1회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어 아기양의 그림자 딸랑이와 무명저고리와 엄마로 매일신문 신춘문예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였으며, 40종의 작품들로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았다.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구)일직남부초등학교 10,841㎡ 부지 위에 37억 원을 들여 1,614㎡ 규모로 조성중인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은 올 11월말이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는 도서관과 시청각실, 강의를 강당, 유품전시관, 소공연장, 대화읽기, 쓰기 구연연구소, 들꽃학습장, 생태체험관 등이 마련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천 음악관과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이 마무리되면 어린이들을 위한 선생들의 업적 재조명뿐만 아니라 소천(笑泉)이란



△소천 권태호 선생의 음악연구소(원내:동요를 부르는 소천 선생)



△신축중인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 음악교육관

호(號)처럼 웃음이 샘솟는 공간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의 음악인과 문화인들의 작품 활동공간으로 문화와 음악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동향우신문 8.30 인용〉
〈사진:권영건 보도부장〉



△신축중인 권정생 어린이문학관 조감도

권오성대장 육군참모총장 취임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권오성대장(한 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하여 9.28 계통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權五晟 육군대장(35世 樞密公派)은 고 권영환씨의 장남으로 육사3기로 입관 해 육군본부 계획편 제처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작전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작전·정책기획분야 전문가로 군 핵심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육군의 자질을 겸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한미 공동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각종 작전 계획을 완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으며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에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와 대북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매진했다.

권 대장은 국방을 위해 헌신하며 군생활에서 항상 지휘통신선상에 위치하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형적인 군인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으며 부하들과는 격의 없이 토론하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부하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망도 두둑하다.



오성(五晟)장군의 선친 權寧煥(추밀공과 부회장 역임)공은 평소 숭조애족심이 깊어 향사(享祀) 등 문사에 열심이었었는데 몇몇 전 지병으로 병석에서 오생하다 급년에 작고하였으며 가족은 부인 신현희 씨와 3남2녀가 있다.

〈편집부〉

安東權氏宗報

총시: 숭조이념확립·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 (054) 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 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채, 권승세
기 자	권영건, 권범준, 권혁세, 권정일, 권오인
자문위원	권정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증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증보사 010108-01-000369